

# 11년째 '천원 밥상'...누리꾼 "돈줄 내자"

### 광주 '해프는식당' 온라인서 화제...응원 붐물 미담 확산 수백만원 적자 불구 후원받아 운영 지역사회 나눔 실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1년째 '천원 백반 밥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의 한 식당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11년째 논란 중인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게시한 글쓴이는 백반 사진과 함께 '이게 정식이라고 내놓는 집', '11년동안 이렇게 차려주고 1천원이나 받네요', '장사도 잘되서 하루에

100명이나 먹고 갑니다', '식당이 적자라 투잡까지 한다고 해요'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어 '이 식당 주인인 돌아가신 어머니가 1천원 백반을 유지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셔서 현재 사장님도 6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줄 내리 가자', '물래 돈을 더 주고 도망가겠다', '쌀값은커녕 설거지 인건비도 안 나오

겠다', '훌륭한 사장님' 등의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 식당은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위치한 '해프는식당'이다. 이 식당의 백반 가격은 1천원. 밥과 국, 세 종류의 반찬으로 구성됐다. 소박하지만 푸짐한 밥상을 찾는 이들도 하루에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프는식당'은 고(故) 김선자씨가 2010년 8월부터 백반을 1천원에 판매해 온 곳이다.

물론 1천원 밥상을 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씨는 백반 판매로 한달 평균 100만~200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한다. 그럼에도 끼니를 거르는 상인 또는 독거노인을 위해 이 같은 나눔과 선

행을 베풀어 온 것이다.

김씨는 2012년 5월 대장암 판결을 받고 2015년 3월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김씨는 유언으로 "식당을 계속 운영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식당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 딸 김윤경씨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이 식당의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딸 김윤경씨는 현재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해프는식당'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곳곳이 가게를 열어 지역사회 귀감이 돼 광주시에선 선정하는 시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동수기자

### 서구 '스마트 도서관' 4호점 풍암동행정복지센터에 개관

광주 서구가 최근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마트 도서관' 4호점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무인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그동안 서구는 코로나19로 문화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상무역, 서구청, 운천역 스마트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이 비대면으로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도서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했다.

서구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신간 도서와 베스트셀러 도서 위주로 300여권의 도서를 비치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도서를 교체, 대여할 계획이다. /인재영기자



가을비 머금은 국화 비가 내리며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인 11일 광주 북구 양월동 화훼단지 앞에 진열된 국화가 가을향을 내뿜고 있다. /김예리기자

# 남구 'MZ세대 공직자' 조직혁신 나선다

### '20·30 주니어 보드' 구성...상향식 혁신 출발점 기대

광주 남구는 11일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꾸려 공직사회 조직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M)세대와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Z세대가 조직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M세대와 Z세대의 6~7급 승진으로 이들이 조직 내 핵심역량으로 성장하는 등 공직사회에 급물결이 일고 있어서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남구청 정원 893명 가운데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6.8%인 것으로 파악됐다. M세대가 253명이며, Z세대는 255명이다.

MZ세대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로 자치구 소속 직원들의 광주시 진출이 많아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남구형 주니어 보드 구성은 상향식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공직 입문이 늘면서 일하는 방식 등을 놓고 기존 세대와의

충돌 등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단체장의 혁신 리더십 및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싱크탱크인 셈이다.

조직혁신의 선봉장인 남구형 주니어 보드는 젊은 세대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청장 구청장은 "20·30세대의 젊고 참신한 생각을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태훈기자

### 북구 '온라인 공유경제 아카데미'

광주 북구는 지역 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유경제는 물건·공간·지식·재능 등 유·무형 자원을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공유경제 사례와 트렌드 이해 ▲공유경제 바로알기 ▲아이스팩, 헌책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실습 등이 다. /조태훈기자

### 오늘의 날씨

▶별레 지역 날씨 최저/최고/구름

☀ 해돋이 06:36 해질 18:02  
🌙 달돋이 12:59 달짐 22:39

**생활정보지수**

- 🍴 **나들이 30**  
우산 챙기세요
- 👕 **빨래 30**  
다음으로 미루세요
- 🚗 **세차 30**  
다음으로 미루세요
- 🏃 **운동 60**  
실내운동 하세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60~30	목포	06:00	11:02
목포	60~30		18:55	23:55
순천	60~30			
여수	60~30	여수	00:21	06:21
			13:21	19:39

시간	서해 남부 (풍향/파고)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동-동/1.0~2.0m 면바다 ☁ 북동-동/2.0~4.0m	오전	앞바다 ☁ 북동-동/1.5~1.5m 면바다 ☁ 북동-동/2.0~4.0m
오후	앞바다 ☁ 북동-동/1.0~2.0m 면바다 ☁ 북동-동/2.0~4.0m	오후	앞바다 ☁ 북동-동/1.5~2.5m 면바다 ☁ 북동-동/2.0~4.0m

**주간날씨**

기간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13/수	☁ (22/28)	☀ (22/25)	☁ (21/25)	☁ (21/26)	☁ (21/28)	☀ (25/28)
14/목	☀ (23/28)	☀ (21/25)	☀ (20/23)	☀ (22/26)	☀ (22/26)	☀ (25/28)
15/금	☀ (23/28)	☀ (21/26)	☁ (21/23)	☀ (22/26)	☀ (22/27)	☀ (25/28)

▶ 날씨안내 : 국민없이131

### '추억의 총장축제' 내달 18일로 연기

'제18회 추억의 총장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됐다.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총장축제를 오는 11월 18일로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달 28일 각 지자체에 지역 축제를 11월 중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애초 11월 초 5일간 개최 예정이던 총장축제를 같은달 18일로 연기하고 축제 기간 또한 4일간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수기자

동구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정부의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축제 연기 권고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축제를 11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게 됐다"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예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총장축제를 철저한 방역 시스템 속에서 안전한 축제로 치러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김기선 전 GIST 총장 석 달 만에 총장직 복귀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이 이사회 해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을

##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발전의 방향과 과제

#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

10월 29일(금) 오후 3시 광주YMCA 2층 무진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민단체인 품자주자시민들, 통신문사인 뉴스1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광주YMCA에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 주민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 광주의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주의 육성 방안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이번 대토론회에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조발표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주제발표 : 서순복 조선대 교수,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 토론 : △ 사회이용연 서영대 부총장
  - △ 토론자 ▲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 안병락 광주시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 ▲ 김일용 광주시자치행정국장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주최 | ◀ 광주매일신문, 품자주자시민들, 뉴스1 | 주관 | 품자주자시민들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